라이벌 제거를 망함으로 오해하기

(욥기 4:1~21)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싫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3.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6.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라이벌 제거를 망함으로 오해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라이벌 제거를 망함으로 오해하기'
오늘 제목을 이해하기 쉽게 한 영화를 예로 들어봅니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디카프리오와 맷 데이먼이 주연을 했던 영화로서 악당과 형사가 서로의 조직에 위장잠입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의 조직의 보스가 충성심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시험해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이나 정부요원 혹은 무고한 시민을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당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죽이겠지만, 위장잠입을 한 경찰이라면 아무 죄도 없는 시민이나 동료를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는 위장 잠입한 경찰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공감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보스를 설득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라이벌 제거하는 것을 근심하고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속으로는 라이벌과 한 편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고, 라이벌을 제거할 수 없다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본문에서 고난을 당한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면서 목숨이 붙어있는

것을 제일 증오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 친구가 욥을 위로 차 찾아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욥을 책망하는 의미의 변론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는 변론에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너무 설득력 있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에서 7~8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오히려 욥의 친구들에게 욥의 말을 들으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욥에 처지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은 잘못되었고 오히려 욥이 옳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살아있음을 한탄하였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서 계시해주시지 않는 한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는 생애라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여김이 옳은데, 욥은 그러한 생각을 환란 중에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욥과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욕망과 이루고 싶은 희망에 가득차서 의욕 만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 된 삶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견 옳게 보이는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7~9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라고 욥을 책망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살아있음을 한탄하는 욥의 태도가 아주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끔찍한 환경에 처한 이유는 욥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욥은 회개는커녕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살아있음을 한탄하는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는 말씀과 혼동하기 때문에 죄가 멸망과 사망과 망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는 말씀과 당연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살아있음을 한탄하는 욥을 옳다고 여기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엘리바스는 망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서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었고 몸은 병에 걸렸고 아내는 떠났고 명성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망한 것입니까? 아니 이게 망한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망한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사업에 마음을 쏟아 부었는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났다면 망한 것입니다. 혹은 자녀에게 마음을 쏟아 부었는데 자녀가 죽었다면 그처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망한 것은 아니더라도 저주 중에 저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욥이 당한 상황을 보면 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망함은 죄로 인한다.'라는 논리의 기준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망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함의 참 내용은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과 명성이 없어지고 자녀가 죽고 몸이 병들고 아내까지 도망을 갔지만 아직 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련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 경외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이 시련은 망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욥이 겪었던 것과 같은 비참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지거나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내가 이 처참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망함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망함에 대한 오해야말로 사탄이 파견한 잠입요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던 막대한 재산과 잘 자란 열 명의 자녀들과 그 명성과 건강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의 내용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봤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떼는 것이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들이 하나님으로 가야할 내 마음을 더 먼저 더 많이 빼앗아 가는 라이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서 이 라

이벌들을 제거함으로서 정말로 욥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라이벌들이 제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욥에게서 일어난 일은 괴로울 수는 있을지라도 망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욥의 상태는 극한의 부흥 상태로 치달았던 것이고, 결국 귀로만 듣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는 하였지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라이벌들에게 적잖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엘리바스의 변론의 논리적 기준이 되는 죄 때문에 망한다는 말은 맞지만 망함을 이해함에 있어서 엘리바스의 세속적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재산이 없어지면 망한 인생입니다. 자녀가 먼저 죽거나 건강이 없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을 중심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라이벌들은 바로 재산 자녀 건강 아내 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 라이벌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벌들이 없어진 것을 망한 것으로 여기는 엘리바스는 오히려 사탄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탄과 하나님이 욥을 놓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것들을 좋아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욥을 망했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화과나무의 무성함,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라이벌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없어졌는데도 망하기는커녕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라이벌이 제거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이 라이벌들이 제거 되는 것을 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런데 재물이라는 라이벌이 없어지는 것을 슬퍼한다면 누구의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라이벌이 제거 되었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적이 제거 될 때에 기뻐하고, 사업가들은 사업의 경쟁자가 없어지면 좋아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나왔던 후보들도 다른 라이벌들이 낙마한다면 좋아했으면 했지 슬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후보가 낙마했는데 우리 캠프의 사람이 슬퍼한다면 그 사람은 잠입요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 하시기 위하여 백 살에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자란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은 독자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의 라이벌을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음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돈 없어지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까? 자녀의 일이 불통하면 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신경이 쓰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 된 상태는 곧 하나님의 라이벌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내 자녀를 죽이거나 재산을 버려야 할까요? 내 건강을 일부러 해치기 위해 술 담배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없어지면 내 마음이 아픈 것이 현실이고, 내 스스로 없어지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갈만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라이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내게 주어진 것들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은 곧 날마다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라이벌들에 대해 죽음으로서 욥이 도달한 하나님을 갖는 축복,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 자녀들을 받고 갑절의 재산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시 마음이 붙지 않도록 십자가 생활화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하여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엘리바스가 욥을 망한 자로 여겼던 것처럼 망함을 자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라이벌을 마음에서 철저히 제거함으로서 하나님 경외를 온전히 이루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드릴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쉼 없이 생활화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